



신인왕 후보 산뜻한 출발

유해란이 27일 미국 슈퍼스티션 마운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를 마친 뒤 갤러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출신 유해란 LPGA 데뷔 첫 대회서 7위 ... “자신감 생겼다”

영암 금정면 출신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데뷔 첫 대회에서 '톱 10'에 진입했다. 유해란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드캐니언의 슈퍼스티션 마운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52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시부노 히나코(일본)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5승을 올린 유해란은 지난해 12월 LPGA 투어 캘리포니아 시리즈에 도전해 1위로 통과한 뒤 이번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3라운드에서 8언더파를 몰아치며 선두에 한 타 차 공동 2위로 올라서며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었으나 이날 마지막 홀에서 경기하며 한 타를 줄이는데 그쳤다. 최종 라운드 티샷이 흔들리던 유해란은 마지막 홀(파5) 티샷이 왼쪽으로 감겨 물에 빠지고 세 번째 샷은 병커로 들어가는 위기를 겪었으나 파 세이

브를 해내며 10위 이내 순위를 지켜냈다. 유해란은 경기를 마친 뒤 “솔직히 이번 대회를 시작하기 전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첫 대회에서 톱10에 들었으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본 것 같다”며 “자신감이 충분히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에 너무 방어적으로 경기해서 기회가 많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되짚은 그는 “앞으로 LPGA 투어에서 뛰며 많은 경험은 될 것 같다. 오늘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안나린은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가 된 안나린은 단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인 셸리 부티에(프랑스·20언더파 268타)와는 두 타 차였다. 캘리포니아 시리즈 1위로 지난 시즌 LPGA 투어 데뷔해 5차례 톱10에 들었던 안나린은 올해 들어선 처음으로 10위 이내 성적을 남겼다. 세계랭킹 3위 고진영은 최종합계 17언더파 271

타로 엘리 유잉과 공동 5위(17언더파 271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첫 출전 대회인 혼다 타이완에서 공동 6위에 오르고,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은 불발됐지만, 이번 시즌 3개 대회 연속 톱10 행진을 이어갔다. 부티에는 조지아 홀(잉글랜드)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 끝에 우승을 달성했다. 홀이 이날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7타를 줄여 먼저 20언더파로 경기를 마쳤고, 한 타 차 2위를 달리던 부티에의 마지막 18번 홀 버디로 연장전이 성사됐다. 1차 연장전에서 홀이 두 번째 샷을 병커에 빠뜨린 뒤 버디를 잡아내지 못했고, 부티에는 칩샷을 잘 붙인 뒤 버디로 연결해 경기를 끝냈다. 양희영은 공동 16위(14언더파 274타), 김세영과 최은정, 신지은은 공동 23위(13언더파 275타), 전인지는 공동 48위(10언더파 278타), 최혜진은 공동 68위(5언더파 283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변우혁 “개막 맞춰 타격 사이클 끌어올리겠다”

한화서 트레이드 KIA 유니폼
“올 시즌 후회 없는 야구 하겠다”



타격 페이스가 떨어진 KIA 타 이거즈 변우혁이 “오히려 잘 됐다”며 2023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변우혁은 지난 겨울 한화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새 얼굴’이다. 지난해 허리 부상으로 고전했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착실하게 시범경기에 출전해 수비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시범경기 초반에는 뜨거운 타격도 선보였다. 최근 경기에서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변우혁은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다. 변우혁은 “전체적으로 캠프 때부터 감이나 밸런스가 아직까지 잘 유지돼 좋은데, 지금 타격 사이클이 떨어졌다”며 “감이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유지하려 한다. 타율 순위권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안하다(웃음). 내 스타일도 아니니 차라리 지금 잘 됐다”고 개막에 맞춰 타격 사이클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범 경기 막판 좋은 투수들을 상대로 공부도 많이 했다.



변우혁

변우혁은 “시범경기 막바지라서 좋은 투수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 많이 보고, 쳐보고 있다. 시즌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KIA는 ‘우타거포’로 변우혁을 선택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올 시즌 초반부터 당장 변우혁의 힘이 필요하다. 팀을 대표하는 타자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아직 시범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최고참’ 최형우도 허벅지 통증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황대인도 전완근 통증으로 사직 원정에 동행하지 못했다. 그만큼 변우혁이 시선이 쏠린다. 변우혁은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달라진 환경, 생각이 변우혁의 변화를 이끌었다. 변우혁은 “예전에는 수비할 때 확실하게 대비를 못했던 것 같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는 어떤 공이 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중한다. 스타트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KIA와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신감이랑 자존감도 많이 올랐다. 자연스럽게 필드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며 “기술적 변화도 있다. 이번호, 박기남 코치님이 타격하고 수비하는 부분에서 좋을 때는 유지를 주문하고,

안 좋은 게 생기면 바로바로 지적해주신다. 연습 하면서 감 잡으려 하고, 밸런스를 좋게 만들려고 하니가 금방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달라진 존재감과 기대감, 팬들의 응원까지 변우혁은 행복하다. 변우혁은 “행복한 야구를 하고 있다. 재미있다. 토요일 야간 게임에 3루 내야가 꼭 쳤다. 좋았다. 야구 할 맛 난다”며 “지난해 이 맘 때는 아파서 누워있었다. 이번 겨울 동안 부상 이슈 다 털어냈고, 지금 경기 계속 나가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매일 매일 새롭고 신기하다”고 말했다. 기대감으로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변우혁이지만 특별한 목표는 없다. ‘후회 없이’가 유일한 목표다. 변우혁은 “경기 하면서 후회가 없을 수는 없다. 항상 후회를 길게 남길 만한 플레이를 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즐기게 된다”며 “기록 목표를 세워도 결국 마지막 144경기 끝나야 기록이 나온다. 후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성적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기록에 크게 신경 안 쓴다. 후회 없는 야구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축구 대표팀 오늘 우루과이와 평가전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7일 파주 NFC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의 토트넘, 콘테 감독 끝내 경질

시즌 ‘무관’에 리그 4위도 ‘위태’
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안토니오 콘테(이탈리아) 감독을 결국 경질했다. 토트넘은 27일(한국시간) 콘테 감독이 상호 합의로 구단과 결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1년 11월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던 콘테 감독은 1년 4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구단은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코치가 남은 시즌 감독 대행 맡고,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수석코치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토트넘은 2021-2022시즌 초반 누누 에스페리투 산투(포르투갈) 감독 체제에서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를 4개월 만에 경질하고 콘테 감독을 앉혔다.

첼시(잉글랜드), 유벤투스, 인터 밀란(이탈리아) 등을 이끌며 여러 차례 우승을 이끈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 첫 시즌 리그를 4위로 마치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을 따냈다. 이 시즌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의 EPL 득점왕(23골)에 오르기도 했다. 히사롤리송, 이반 페리시치 등을 새로 영입한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은 리그에서 15승 4무 9패로 승점 49를 쌓아 4위를 달리며 UCL 출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UCL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리그컵에선 모두 탈락해 사실상 ‘무관’이 확정되며 콘테 감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토트넘 떠나는 콘테 감독. /연합뉴스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을 끝으로 토트넘은 어느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기 직전 경기인 19일 최하위 사우샘프턴과의 28라운드에서 3-3으로 비기며 리그 4위 경쟁마저 위태로워진 건 결국 구단의 경질 결단으로 이어졌다. 토트넘은 두 경기를 덜 치른 5위 뉴캐슬(승점 47)에 바짝 쫓기고 있다. /연합뉴스

올 시즌 K리그 925명 된다...광주FC는 33명

올 시즌 K리그에서 925명이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하하원큐 K리그 2023’ 정기 선수등록을 마감한 결과 K리그1 465명, K리그2 460명 등 925명의 선수가 올 시즌 K리그에서 활약하게 됐다. 지난해 정기 등록 기간에 등록된 선수 855명에 비해 70명 늘었다. 올 시즌부터 천안시FC와 충북청주FC가 K리그2에 새로 참가하게 됐고, K4리그 참가 B팀 윤영 구단도 지난해 4개(강원, 대구, 대전, 전북)팀에서 올해 부산이 추가되면서 등록 선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K리그1 12개 구단의 평균 인원은 38.8명으로, 전북과 대전이 4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등록했다. 울산은 31명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는 33명이다. K리그2 13개 구단의 평균 인원은 35.4명이다.

부산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아산이 30명으로 최소 인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36명을 등록했다. 22세 이하(U22) 선수는 K리그1 154명, K리그2 123명 등 277명으로 전년 대비 25명이 증가했다. K리그1은 대구가 22명, K리그2는 부산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의 U22 선수는 7명, 전남은 8명이었다. K리그 유스 출신 선수는 K리그1 166명, K리그2 15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16명 늘어난 325명으로 자구단 유스 출신 선수가 가장 많은 구단은 전북으로 전체 46명 중 17명이 전북 유스 시스템을 거쳤다. 광주는 5명, 전남은 3명이었다. 한편 준프로 계약을 통해 K리그를 뛰게 된 ‘고교생 K리거’는 전북 공시현과 부산 김민승 등 2명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